

EU 연구혁신 주간 동향 보고

<25.11.20, 한-EU연구협력센터>

○ EU 예산 합의로 2026년 호라이즌 유럽 2천만 유로 증액(11.17)

- 유럽의회와 EU이사회는 2026년 EU 예산안에 대해 잠정 합의 도출, 호라이즌 유럽 2026년 예산을 집행위원회 제안보다 2천만 유로 증액 결정
- 11월 15일 양측 협상단이 최종 합의에 도달했으며, 에라스무스+ 프로그램도 초기 제안보다 3백만 유로 증액에 합의(집행위는 2026년 에라스무스+ 예산을 전년 대비 7.7% 늘어난 42억 7,400만 유로로 제안)

※ 이사회는 11월 24일 해당 예산안을 공식 승인 예정, 유럽의회 표결은 이달 말 전에 예상됨

○ 호라이즌 유럽, 더 많은 신규 참여자 유치 추진, 주제 축소·범위 확대·신청서 간소화·정액지급 확대(11.17)

-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6~27년 워크프로그램 초안을 통해 신규 참여자 유치에 초점을 둔 새로운 공모 구조를 제시. 그대상은 중소기업(SMEs), 스타트업·스케일업, 시민사회단체(CSOs), 소규모 공공행정기관이며 이들을 위해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'연구혁신 패스트트랙' 과제 도입

※ 신청자가 연구 성과의 영향력과 달성 방식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해, 진입 장벽을 낮춤

- 예시로 2천만 유로 규모의 패스트트랙 과제는 'Made in Europe', 'Process4Planet', 'Clean Steel' 등 5개 산업기술분야의 8개 프로젝트를 지원하고, 화학산업 혁신을 위한 별도의 1천5백만 유로 과제도 마련됨
- 소규모 프로젝트로 자금을 전달하는 cascade funding 공모도 확대 예정

○ 집행위, 호라이즌 유럽 간소화 계획 가속화(11.18)

- 집행위원회는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마지막 2년(2026~2027년)을 앞두고 행정 간소화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며, 주요 조치로 간결한 주제 설명, 공고 대상 주제 수 감축, 립섬펀딩 지원 확대 등을 설정

○ (기타) ▲마리아 크리스티나 루소(Maria Cirstina Russo), EU 연구혁신 총국(DG RTD) 부총국장으로 임명(11.12) ▲EU, 이중용도(Dual-use)·방위 연구개발 자금지원 규정 대폭 개편(11.05)